



즉시 배포용: 2021년 4월 27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마스크 사용에 대한 새로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을 채택한다고 발표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서 발행한 새로운 지침 확인은 [여기](#)

*지침은 **코로나19 예방 접종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뉴욕주가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의 마스크 사용에 대하여 질병 통제 예방 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의 새로운 지침을 채택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화이자(Pfizer) 또는 모더나(Moderna) 백신의 두 번째 복용량이나 존슨 앤 존슨 앤 존슨(Johnson & Johnson) 백신을 투여받은 후 2주 이상으로 정의되는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특정 혼잡한 환경 및 장소를 제외하고 더 이상 야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착용해야 합니다. 이 지침은 예방 접종을 받고 공중 보건 지침을 면밀히 준수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합니다. 특히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면역 저하 상태가 있으며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은 먼저 의료 서비스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Cuomo 주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 통제 예방 센터는 오늘 새로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백신 접종을 완전히 받은 미국인들이 외부, 자전거 타기, 하이킹, 달리기 또는 소규모 모임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특히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자유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뉴욕은 그 지침을 채택하여 뉴욕주에서도 발효될 것이며, 질병 통제 예방 센터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이 뉴스는 예방 접종을 받으면 더 많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아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모든 뉴욕 주민에게 오늘 예약을 잡을 것을 권장합니다."

새로운 질병 통제 예방 센터 지침에 따르면,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은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근로자는 증상이 없는 한 더 이상 노출 후에 작업을 제한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비의료 밀집구역 환경 거주자는 더 이상 알려진 노출 후 격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고 완전히 예방 접종을 받은 사람들과 실내에서 만남
-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물리적 거리를 두지 않고 실내에서 심각한 코로나19 질병의 위험이 낮은 단일 가구의 예방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어린이 포함)과 함께 만남
- 특정 혼잡 환경 및 장소를 제외하고 마스크 없이 야외 활동 및 레크리에이션에 참여
- 국내 여행을 재개하고 여행 전 또는 여행 후 검사 또는 여행 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음
- 국제 여행을 위해 미국을 떠나기 전에 검사를 받지 않고(목적지에서 요구하지 않는 한) 미국에 다시 도착한 후 자가 격리를 하지 않음.
- 특정 설정에 대한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무증상인 경우 알려진 노출 후 검사를 받지 않음
- 무증상인 경우 알려진 노출 후 격리를 하지 않음
- 무증상 및 실현 가능한 경우 일상적인 선별 검사를 받지 않음(비의료 환경에서)

이 수정은 입법부에 통지될 예정이지만, 올해 초에 제정된 2021년 법의 71장의 긴급 사태 조항을 사용해 즉시 발효됩니다.

###

다음 웹 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

[구독 취소](#)